

제9회 신행수기 수상자 명단

- 대상(유마상) 박수영 '백 여덟 번째의 기회'
-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배장환 '아버지'
-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정상구 '해회처(解悔處) 가는 길'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향광행 '세 자매의 부처님'
-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박길복 '그리운 님 황금의 동상'
-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김갑숙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온다'
- 특별상(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 특별상(신수회장상) 최봉중 '나유담'

당선 소감



박수영 (주부 / 대구시 동구)

불교를 신앙으로서가 아닌 진리로써, 모두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모로 능력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불심의 기본적 시각, 마음의 자세, 불교와 문학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집목시키다가 신행수기를 만났습니다. 제 소망의 첫 삽을 떠올리며 실패의 짜릿한 경험 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의 방향이나 어려움이 단번에 위로와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숨은 곳에서 보시, 봉사 활동 등 보람되고 가치 있는, 훌륭한 신행생활을 하고

실패도 '공부'임을 알리고 싶어 응모

불자들 신행에 도움된다면 영광

계십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 떠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내심 우려를 했습니다면 저 나름의 귀중한 체험을 모든 분들께 알리고 동참을 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장강호부터 열심히 구독한 결과로 이런 큰 상을 부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주장자를 굳건히 세우며 불자님 모두의 마음 속 주인공을 조조해 바라봅니다. 함께 나아가자고. 심사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합니다.

백 여덟 번째의 기회

박수영 (주부 / 대구시 동구 신천4동)

1997년 IMF 관리체제가 우리나라를 덮었을 때였다. TV를 비롯한 모든 매스컴에서는 생소한 단어들만 넘쳐났다. 'IMF', '구조조정', '모라토리움', '우리네 소시민들은 휘둥그레 눈을 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나도 엉거주춤 시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긴, 너무들 흥청망청 했었지', '진짜에 모두들 정신 차렸어야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여 책임을 전가 시키기에, 서로를 원망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다른 모든 경제적 타격은 제쳐 두고라도 나에게만은 군 제대를 코앞에 둔 아들이 있었다. 당장 취업 문제가 다가왔다. 제대 후 졸업을 하면 적당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수순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매스컴의 아단 법칙에 비례해서 마음 속 불안지수도 높아만 갔다.

아들이 제대하기 전 무작정 108배를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발원이라기 보다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한 가닥 희망의, 최선의 수단이었다. 그냥 불교 신도란 호칭만 달고 다닌 지 십수 년이 되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편리할 때도 있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면? 어떤 때는 어쭙잡은 설득이나 회유, 강요도 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불심, 확실한 신념이 없는 이론은 말보따리에 불과할 뿐, 빈 바람뿔처럼 공허했다. 나의 알뜰한 지식이나, 절에 다닌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이상(我相)만 높아져갔다.

'부처님 아들의 취업이 걱정됩니다.' 기복(祈福)에서 출발한 내 기도는 108 번뇌를 넘나들며 '과거, 현재, 미래, 육신, 허세, 집착 등 모든 인간사 속성의 구석구석을 훑고 튀지며 형식적인 108 번의 절로서 마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어떤 날은 '이제 기도가 아닌데...' 라는 자각이 슬며시 들었으나 늦은 밤, 절을 시작하면 마음은 또 다시 허욕의 돌살 속을 허우적거렸다.

유년은 아주 병약(病弱)했다. 초등학교 시절, 신학기 첫 날은 항상 결석해 제대로 정해진 내 자리에 앉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으며, 소심한 성격을 점점 더 위축시켰다. 체육시간에는 외톨이로 운동장 귀퉁이 꽃밭에서 사금파리로 글 굿기를 하며 지낸 기억, 제법 키가 커진 5학년 때 외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 간 부끄러운 기억, 반쯤 밖에 다니지 않은 중

학교 1학년 때 '4등'이 적힌 통지표를 보시고,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 등... 나는 항상 '병골이', '약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웃기 없는 아이로 인식돼 뒷줄로만 다녔다. 결혼 후에는 조금 나아

게져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식구들은 별의별 이유를 붙이며 만류했지만 나 또한 '한국 아줌마의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저런 사연을 만들며 108배는 슬그머니 내 생활의 일부로 녹아들었다. 차츰차츰 흔들림도 줄어들고 그 말던, 거미줄 같이 얽혀 나를 옥죄던 잡다한 생각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언제부턴가 108배를 할 때 잡념이 없어졌다. 그냥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심 등이 108배를 할 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20분은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 행복하기까지 했다. 물론 평소에는 누구를 홍보하다가, 시린 무릎 걱정하다가, 생각으로 기약 없는 열두 채 기와집도 지었다가, 뒤죽박죽이었지만.

'1000일을 마치면 그만 두어야지'라는 생각도 1,000일이 지나자 욕심인지 집착인지 그만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108배는 계속됐다.



그림 / 문병성

108배 계속하여 부처님만 생각하게 돼 천식에 시달리면서 의심 덩어리는 커지고... '너무도 먼길을 굵이굽이 돌아왔습니다'

했지만 '기관지 천식'을 천형인 양 평생 달고 살아가는 내게 요령 없는 108배는 무리였는지 처음 얼마동안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 숨이 가빠질 때는 다반사였고, 무릎이 아파 약을 붙여 괜히 방안을 서성이기도 했고, 피로회복제를 꺼내 마시기도 했다. 예전에는 '성철 스님의 30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배는 어렵사리 한 적도 있었는데...'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거야' 부처님께 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얼마, 오늘 저녁은 제가 절을 할게요' 욕

것만이 무작정 좋았다. 이런 것이 무념(無念)일까? 나도 무슨 발원(發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모아 발원을 해 보지만 어느새 마음은 무념 상태가 되어가고 했다. 신기했다. 그렇게 나를 싸고 있던 걱정, 불안, 욕

구 사이사이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300배로 7일 기도를 해야지', '300배로 100일기도를 해야지' 등의 생각을 키우며 욕심을 눌러갔다. 여하튼 기도에 탄력이 붙었다고나 할까? 기도시간이 즐거워지며 기다려질 때도 있었다.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진각종 清心淨土

即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의 대표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淨 宗議會長 鎭 傑 山 明

教育院長 孝 惠 查監院長 鎭 傑 山 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한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南天 竹山 司書室長 李曉天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總務局長 李大光 財務部長 朴智悅 財務局長 朴智性 監察部長 金堡弘 監察局長 李義禪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陳大明 修教局長 辛性法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布教局長 金玄觀

教務部長 李法炫 教務局長 李道悟 社會部長 趙法護 社會局長 李道覺

譯經部長 具普覺 譯經局長 金玄山 組織部長 權宗一 組織局長 林法京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 763-3345. 0054 / Fax : (02) 763-5851

시시비비에서의 명확한 결론, 낯선 상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 용서나 실수에 대해 인색한 고집관념, 현실회피에 질 정도로 굳어지면 이 기심 등이 한 겹 두 겹 벗겨져 나감을 느꼈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모든 일에 생각만 많은 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던 나의 단점들이 수궁이 됐고 그 개선의 여지 또한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던 나의 또 다른 부분은 스스로 다독여왔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전엔 조금만 피곤해도 숨이 가빠지고, 가벼운 감기 증세도 빠르게 전신으로 옮겨갔다. 밤에 자다가도 숨이 조여들면 앉아서 밤을 새울 때가 많았다. 기도(氣道)를 넓히는 흡입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 또 빈혈이 심해 길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간 적도 여러 번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제 자리를 잡아갔다. 가슴 속 밑바닥에서 감사함이 일어나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불신했으며 거부했었던가? 그래도 나는 역시 부처님 자식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딸 들을 낳고 아들을 소원하신 천정어머니에게 환한 금빛 물살이 퍼지는 듯 위에서 발가슴이 제집아이를 안겨 주셨다고 했다. 기 회 있을 때마다 불심이 날다르신 어머니를, 알 랑한 지식을 내세우며 외면했었다. 참 너무도 먼 길을 굽이굽이 돌아왔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결손으로, 하심으로, 환희심으로, 또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찾아왔다. 부처님 법이나 진리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나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 많은 방황을 했다. 참선에 대한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손에 잡히

에 떠오르는 장애아, 소년 소녀 가장 등 불특 정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금강경의 '응무 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에 감히 가까이 다가서는 것인가? 하잘 것 없는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 도움이 되겠느냐는 그레도 부처님께서서는 그 근기에 맞게 어떤 방편으로 든 나투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 겼다.

부처님께서서는 내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 건 강한 몸을 가지지 못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 지 겹쳐서 일까? 예전에는 부정적 시각이 나 를 옮겨왔다.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여, 똑 같이 있는 반 컵의 물도 속깊없이 기분이 맑은 어떤 날은 반 컵이나 물이 남았다고 신명을 내 다가, 또 까닭 없이 우울한 다른 날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세상에 주눅 들며 형편 없이 위축되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법문을

의 정해 놓은 액수를 넘지 않고 불전을 기복 (祈福)의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했 다. 나의 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되어진 보상이나 대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절에 갈 때 마다 불전 때문에 자주 감동이 일어났다. 그런 데 이것은 기복도 보신도 아니었다. 앞으로의 나나 가족을 위한 든든하고 확실한 저축이었 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다니, 그 베품의 밑바 닷에 나의 아상(我相)은 없었는가? 과연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되는가? 너무나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교차되었다.

무주상보시(無住想布施)를 생각했다. 혹시 라도 내 안 구석 어디인가에 아상이 도사리고 있 을 것 같아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정공, 사경도 병행했다. 감히 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면벽(面壁) 흉내도 냈다.

그래서 나는 남이 갖지 않는, 어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줄 나 혼자 만의 비밀스러운 우주은행에 저축하기 로 했다. 그리고 나니 미약하나마 '텔레뱅킹' 등으로 어떤 기관에 송금할 때도 마음이 흔들 리지 않았다. 어떤 때는 즉흥적인 송금 후 일 말의 후회를 한 적도 있었다. 비록 행체는 없 으나 진리의 세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 연히 존재하는 당연한 사실인 것을 여태껏 모 르고 살았다. 절에 갈 때 불전 앞에 놓는 '금 액'에 대한 아쉬움이나 망설임도 없어졌다. 돈으로도 해결 못할 미래에 대한 막연하던 불 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눈에 보이지 는 않지만 '우주 저금통장'에도 빨리빨리 잔 액을 불리고 싶었다. 혹시라도 미래에 있을지 한 위험에 내 통장의 잔고가 모자랄까봐, 이렇 게 내 마음을 바리게 해준 '주인공'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과 몸 구석구석까지 가득 찼다. 나 자신 스스로도 대견해졌다.

자리(自利)에서 이타(利他)로 넘어가는 깨우 침이 '우주 저금통장'이란 징검다리로 한 걸 음 다가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서는 백 여덟 번의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 많은 정신 적, 물질적 깨우침의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허우적거렸는데도 마지막 백 여덟 번째의 기 회를 남겨 주셨다. 이제는 모든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힘들고 감당 못 할 일이 생 기면 우주의 연결된 나의 주인공(眞我)에게 자 연스레 맡기게 되었다. '주인공, 내가 해결하 고 이 시자를 잘 이끌어가' 라고. 이제는 흔들 리지 않을 자신감도 생겼다. 누구에게나 미소 로 대하고 여유로워지며 칼날같이 날카로웠 던 마음도, 주눅 들고 위축되었던 마음도 당당 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두려움도 없어졌다. 이 현실한 묵시(默示)를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 다. 혹시라도 생활이 힘이 들고 부대끼 때, 위 기는 다시없을 기회라는 그 평범한 진리로 부 처님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기를 권하고 싶다. 개인기는 자식을 내칠 부모는 없지 않은가? 수천 년을 이어 온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를 증 명하고 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림 / 문병성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끝없이 의문 일어나 법문 들으며 긍정적 시각, 마음속 '계산' 없어져 주인공에 대한 감사함 생활 구석구석 가득

있었다.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 씩 나아졌다. 차츰 무악 횡수가 줄어들어 1주 일 분의 약으로 한 달을 지내고 6개월을 견디 게 되었다. 맹세코 나를 위한 기도는 한번도 없었다. 아이들의 일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집안

는 대로 여러 경전들을 읽고 외우며 가끔씩 큰 스님 법문도 경청했다. 예전 얼마간의 교사생 활의 연장선에서였는지, 사회의 어떤 문제보 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108 배는 우리들의 아이들, 특히 그날그날 머리

찬가지이다. 8만 원이 모이면 10만 원을 만들고 싶고 9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으로 채우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지고 있다. 치밀한 성격의 나도 한 달의 수입에서 기독교의 십일조(十一條) 내나 나를

들었다. 그러면 이리저리 날 뛰던 두렵고 초조하던 마음이 어느 틈에 안정되며 콧노래가 나왔다. 생활이 차츰 즐거워 지며 세상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마음 속에서 '계산'이 없어졌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는 절약이나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산다. 물론 나도 마

심사평

총 100여 편에 이르는 응모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총 14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응모자들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선작들을 선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여러모로 각별한 정성을 녹인 작품이 많아, 심사과정 중 '힘들지만 행복한 고민'이 내내 함께했음을 밝힌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영 씨의 <백 여덟 번째의 기회>와 배장환 씨의 <아버지>를 특별히 주목했다. 두 작품 모두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신행생활의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백 여덟 번째의 기회>는 기도를 통해 무주상보시의 실천까지 이끌어 낸 점이 돋보여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높은 수준, 선정 과정 힘들지만 행복 불교계 현실 비판관 등 풍성한 수확

<아버지> 역시 대학생이 수련대회를 거쳐며 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편지체로 담아낸 것이 신선했으나, 순간적인 느낌을 생활수행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 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삶이 담긴 작품 6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복이나 교리에 집착하지 않고 신행생활과 불발을 접목, 무난하게 풀어낸 작품들 위주로 수상작을 골랐다. 특히 올해는 <그리운 남 황금의 동상>과 같이 신도의 눈으로 불교계 현실을 비판하는 시도까지 엿보여 나름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심사위원: 사진 원복부터 법산 스님(심사위원장, 동국대 정각원장), 희명회 신수회장, 이영자 초대 신수회장, 최정희 전 편집국장, 김장자 논설위원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포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등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제2차 1029일간 영가천도 기도법회로 국운융창, 국민대화합,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7차에 걸친 불교의 흑독한 외침으로 국가가 절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영화를 이루고자 국왕(고려 고종)과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한자적 정성경 담 아낸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국민화합의 원천이자 국난극복의 큰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75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숭경과 함께 해온 이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보존·유지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인류문화의 보고 寶庫이자 한 민족의 위대한 가치인 팔만대장경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 청동판 복원불사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또 하나의 민족적 과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팔만대장경 조성으로 극복해냈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의 민족적 과제 등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청동판 복원불사를 통해 불보살의 가피로 극복해내고, 국민대화합, 국운융창과 조국의 통일, 세계평화를 발원코자 성스러운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불사에 많은 성원과 동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 기도입재일: 2003년 양력 11월 3일
- 기도회향일: 2006년 양력 8월 28일
- 천도재 동참금: 100만원 (동판 팔만대장경 1장 포함: 해인사에 영구보존)
- 동판 팔만대장경 1장: 50만원 (경민신문 해인사 기정에 모실 분)
- 계좌번호: 농협 843174-51-009176 (해인사 천도법회) 우체국 611806-01-002618 (해인사 천도법회) 농협 843174-51-012073 (해인사 동판)
- 문의: (055) 931-8771, 934-3105-6, 934-3107 (팩스)

▲ 책고의 용말록 수명이 만년 이상인 (사)용암사에서 생산된 인공복제 우연(65)구여 기공로 조성된 팔만대장경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세민 합장

(주)용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중판 및 대리점 모집